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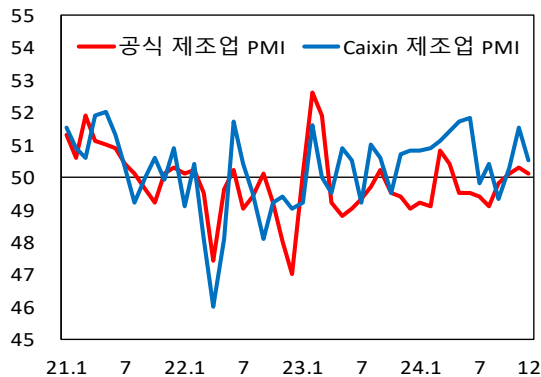
제목

중국 12월 제조업 PMI 소폭 둔화

1. 12월 PMI의 주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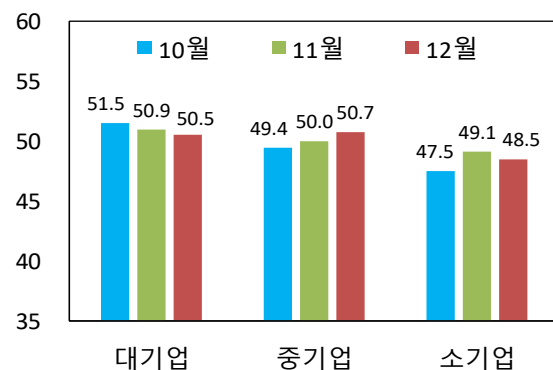
- (제조업 PMI) 12월 제조업 PMI는 50.1로 전월(50.3)보다 0.2p 하락하였으나, 3개월 연속 기준치(50)를 상회
- 규모별로는 중기업(11월 50.0 → 12월 50.7)이 전월보다 상승하였으나, 대기업(50.9 → 50.5)과 소기업(49.1 → 48.5)은 전월보다 하락

제조업 PMI



자료: 국가통계국, WI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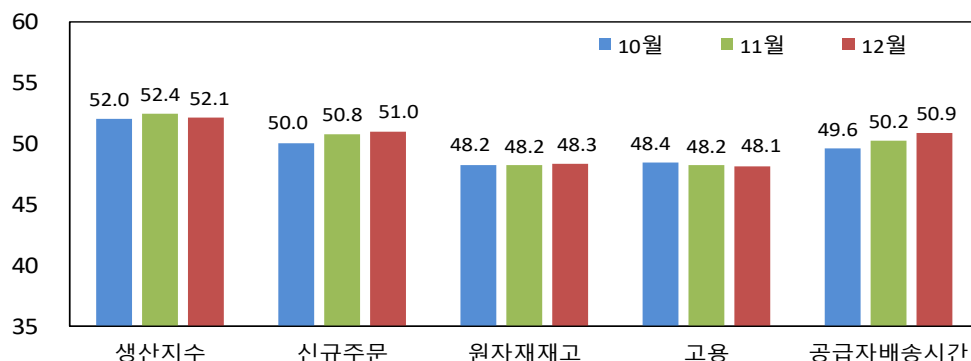
기업규모별 제조업 PMI



자료: 국가통계국, WIND

- 세부 항목별로 보면 신규주문(11월 50.8 → 12월 51.0), 원자재재고(48.2 → 48.3), 공급자배송시간(50.2 → 50.9)이 전월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생산(52.4 → 52.1), 고용(48.2 → 48.1)은 하락

구성항목별 제조업 P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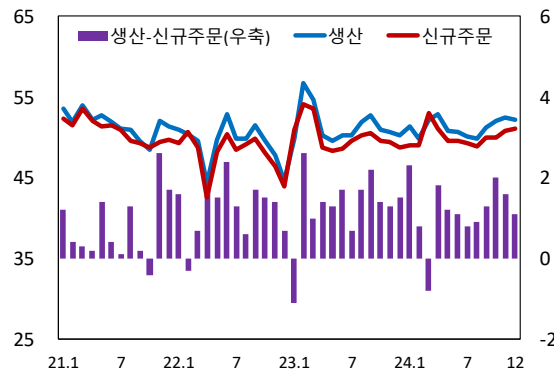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국, WIND

— 공급으로 해석가능한 **생산지수**와 수요로 해석가능한 **신규주문지수** 간 **차이**는 **축소***

* 생산지수 - 신규주문지수: (24.8월) 0.9 → (9월) 1.3 → (10월) 2.0 → (11월) 1.6 → **(12월)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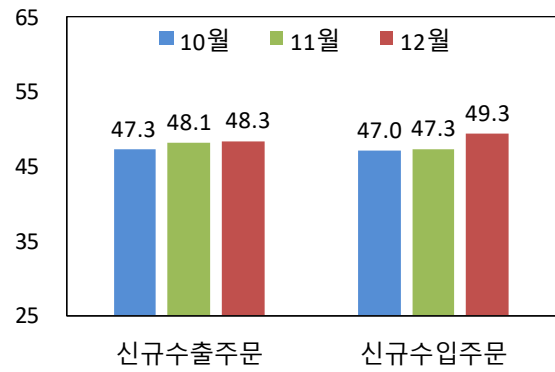
— **신규수출주문***(11월 48.1 → 12월 48.3)과 **신규수입주문**(47.3 → 49.3)은 모두 전월에 비해 **상승**

생산 및 신규주문 PMI



자료: 국가통계국, WIND

수출입 관련 P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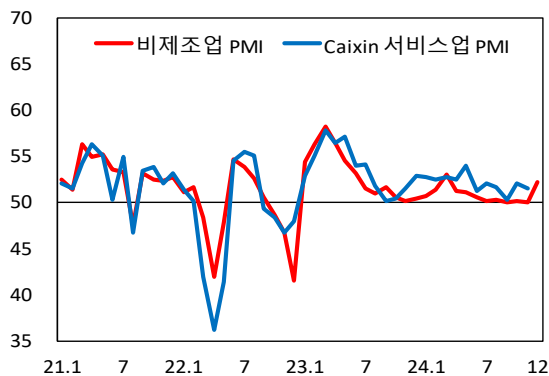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국, WIND

□ **(비제조업 PMI)** 12월 비제조업 PMI는 52.2로 전월(50.0)보다 2.2p 상승

○ **서비스업**(11월 50.1 → 12월 52.0)은 전월에 비해 **상승**

○ **건설업**(49.7 → 53.2)은 **전월보다 3.5p 상승**하며 기준치(50)를 하회한지 한 달 만에 **기준치 상회**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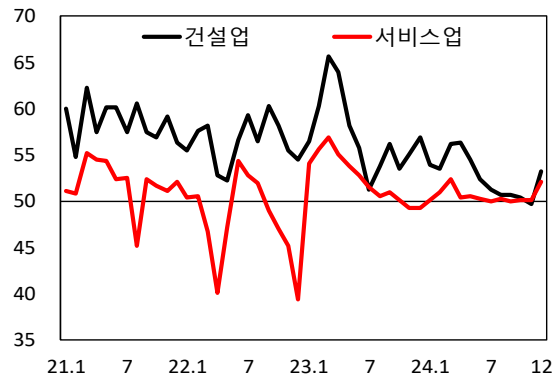
비제조업 PMI¹⁾



주: 1) 24.12월 Caixin 서비스업 PMI는 미발표

자료: 국가통계국, WIND

건설업 및 서비스업 PMI



자료: 국가통계국, WIND

□ **(종합 PMI)** 12월 **종합 PMI***(52.2)는 비제조업 상승에 힘입어 **전월**(50.8)보다 **상승**

* 제조업 생산PMI와 비제조업 PMI의 가중치 합으로 산출

2. 시장평가 및 전망

□ **제조업 PMI**가 **소폭 둔화**되며 시장의 예상치(Bloomberg 중앙값 50.2)에 못 미쳤으나, **비제조업**은 **서비스업**과 **건설업**이 **모두 개선**

○ **제조업 PMI**가 소폭 둔화되었으나, 중국의 역외 공급망 구조조정 가속화 등으로 신규수출주문이 개선되고 이구환신 정책 및 다가오는 춘절 연휴의 영향도 더해지면서 신규주문과 생산은 양호한 모습을 보임(申万宏源)

— 다만, 원자재구매가격과 출하가격이 모두 2개월 연속 하락하여 디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내수 회복세가 부족한 가운데, 기업들이 향후 수요 반등에 대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을 가능성(銀河証券)

원자재구매가격 및 출하가격 PMI 지수

	24.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원자재구매가격	50.4	50.1	50.5	54.0	56.9	51.7	49.9	43.2	45.1	53.4	49.8	48.2
출하가격	47.0	48.1	47.4	49.1	50.4	47.9	46.3	42.0	44.0	49.9	47.7	46.7

○ **건설업 PMI**는 중국정부의 정책 지원 등의 영향으로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건설업 신규수주지수*가 크게 상승하며 반등하였고, **서비스업 PMI**도 정부의 내수 진작책과 신정 및 춘절 연휴에 대한 수요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며 상승(銀河証券)

* (24.7월) 40.1 → (8월) 43.5 → (9월) 39.5 → (10월) 43.5 → (11월) 43.5 → **(12월) 51.4**

□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 이후 중국 경기에 대한 중국내 기대감이 다소 커진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후 **대외 리스크 확대 여부**와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 등에 주목

○ 다수 시장참가자들은 더욱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 정책 시행, 전방위적인 내수 확대 정책 등에 따른 경기 개선을 기대하는 가운데, 국채 발행 확대, 계절적 유동성 수요 등에 따라 춘절(1.28일~2.4일) 이전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제기(中金公司)

○ 트럼프 대통령 취임(1.20일) 이후로 미국의 대중 관세정책 등에 관심이 높은 가운데, 1월 美 연준의 FOMC 회의(1.28일~29일) 결과(예기치 못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경우)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변동할 가능성에 우려(中信証券)